



실전 같은 훈련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선수들이 오는 16일 2007 아시안컵 예선 대만원정을 앞두고 14일 오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마무리 훈련에서 세트플레이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골 최대한 많이 넣고 이기자”

독일월드컵축구 이후 새롭게 출범한 '베어백호(號)'가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007 아시안컵 예선 B조 조별리그 2차전 대만과 원정경기를 치르기 위해 14일 오후 5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이항공 635편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했다.

대만, 시리아, 이란과 같은 조에 속한 한국 대표팀은 디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끌던 지난 2월22일 시리아와 조별리그 1차전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반면 같은 조 최약체로 꼽히는 대만은 지난 2월과 3월 이란, 시리아와 차례로 맞붙어 모두 0-4로 패했다.

## 베어백호 어제 출국...내일 아시안컵 대만전 4-3-3 전술...박주영·안정환·이천수 스리톱 대만 밀집수비 대비 MF 중거리슛도 기대

대만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9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역대전적에서는 한국이 20전 13승1무6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그냥 1

승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면 안된다.

향후 골득실차로 순위가 가려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다득점을 올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다득점 여부는 얼마나 빨리 첫 골을 넣느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4-3-3' 포메이션에서 선발 출전이 유력한 박주영-안정환-이천수 스리톱 공격라인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약체인 대만이 밀집형 수비 위주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거리슛에 일가견이 있는 김두현, 백지훈, 김정우 등 미드필더진의 득점포가 먼저 터질 가능성도 크다.

대표팀은 이날 오후 늦게 대만에 도착하면 대만축구협회가 잡아준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15일 오후 한 차례 훈련을 통해 호흡을 맞춘 뒤 16일 오후 7시(한국시간)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한 충산 스타디움에서 대만과 일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미나 뒷심 부족...4위 그쳐

## 크리스티 커 12언더 우승 한국선수 8명 톱 10 랭크

LPGA 캐나다여자오픈 최종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나선 이미나(25·KTF)가 후반 부진으로 아쉽게 역전 우승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 선수 8명이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려 '최강 군단'의 위력을 아낌없이 과시했다.

이미나는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헌트클럽(파7·6천611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N캐나다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 등을 묶어 2오버파 74타를 쳐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4위에 올랐다.

작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던 이미나는 2연패는 이루지 못했지만 지난 2월 필즈오픈 우승과 5월 코닝클래식 준우승에 이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상승세로 돌아설 계기를 만들었다.

남생 첫 우승에 도전했던 이지영(21·하이마트)도 2타를 잃어버려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5위를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신인 이지영은 올해 두 차례 공동 10위에 오른 뒤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올렸다.

켈리파인스를 통해 LPGA 무대를 밟은 유선영(20)은 3언더파 69타를 때리는 선전을 펼쳐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6



위를 차지했다.

2언더파 70타를 친 '말안나' 정일미(34·기아골프)와 73타를 친 김영(26·신세계)은 합계 4언더파 282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이밖에 장정(26기업은행), 박희정(25·CJ), 조영아(22) 등이 공동 10위(3언더파 285타)에 올라 한국 선수 8명이 10위 이내에 포진했다. 박세리(29·CJ)도 4언더파 68타를 뽑아내 공동 20위(1언더파 287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우승컵은 보기없이 버디 7개로 65타를 몰아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친 크리스티 커(미국·사진)에게 돌아갔다.

22만5천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은 커는 시즌 상금 113만5천920달러로 랭킹 5위로 올라섰다.

## 재미교포 김벌리 김 최연소 챔피언 등극

US 여자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재미교포 김벌리 김(15·사진)이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했다.

하와이 태생의 김벌리 김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노스플레이어 힐리 지골프장(파71·6천380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US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독일아마추어골프 챔피언 카타리나 샬렌베르크(독일)를 1홀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오는 16일 만 15세가 되는 김벌리 김은 이로써 1971년 16세 2개월의 나이로 우승했던 로라 보(미국)를 넘어 선 최연소 우승자로 기록됐다.

김벌리 김은 15번홀까지 5홀을 뒤져 패색



이 질었지만 16번홀부터 18번홀까지 3홀을 연속 때내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26번홀 출신 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동점을 만든 김벌리 김은 12번홀(파3)과 13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홀차까지 벌리며 승기를 잡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대만전 관련 포인트

## 베어백 데뷔전...세대교체 시험대

한국 축구대표팀이 16일 오후 7시(이하 한국시간) 대만 타이베이 충산 스타디움에서 대만 대표팀과 2007 아시안컵 예선 2차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독일월드컵축구 이후 처음 치르는 A매치인 데다 디 아드보카트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 베어백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해 그만큼 눈여겨볼 관련포인트도 많다.

▲베어백, 이드보와 차별 전략 성공하나 베어백 감독은 취임 직후부터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전임 아드보카트 감독과 다른 면모를 보여왔다.

일단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세대교체 단행'에 따라 젊은 선수가 대거 포함된 예비 대표팀 36명을 파주NFC에 소집해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종 엔트리 20명에는 새 얼굴이 많이 배제됐고 아드보카트와 같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았다.

대신 훈련기간 매일 선수 개개인 또는 포지션별 면담을 통해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색깔을 내기 위해 노력중인 점은 눈에 띄었다. 이같은 노력은 자신의 데뷔 무대이기도 한 대만 원정에서 1차로 평가를 받게 된다.

물론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항목은 결국 성적표일 수밖에 없다.

▲대표팀 새 얼굴 '베스트11' 경쟁 일단은 독일월드컵 당시 대표팀에 있던

선수들이 이미 기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유리한 편이다.

특히 독일 무대를 밟고도 정작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도 유럽과가 모두 제외된 이번 대표팀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려고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운재(수원)가 빠진 수문장 자리를 놓고 김용대(성남)와 김영광(전남)이 다투고 있으며 미드필더에서는 백지훈과 김두현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대표팀에 선발된 장학영(성남), 오병석(포항), 김정우(나고야), 정조국(서울), 신영록(수원) 등 5명도 반드시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대만은 어떤 팀

## FIFA 랭킹 149위...한국 13승1무6패 우위

대만 축구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9위의 약체다.

대만 축구는 1950~6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1954년 마닐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데 이어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상에 올라 2연패를 달성했다. 공교롭게도 대만이 우승할 때 결승 상대는 두 번 모두 한국이었다.

하지만 70년대부터는 농구와 야구의 인

기에 가려 침체에 빠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예선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5골을 허용하며 6경기를 모두 패했다.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도 6차례 경기를 모두 졌다.

2007 아시안컵 예선은 지금까지 시리아, 이란을 상대로 2차례 치렀는데 2패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역대 전적에서는 총 20번 맞붙

었는데 한국이 13승1무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1968년 이후에는 5전5승으로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다.

하지만 대만 축구는 2004년부터 국내 축구 리그를 조직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으며 사령탑에 일본 출신 이마이 토시아키(52) 감독을 영입해 선진 축구기술 도입도 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20세 신예 스트라이커인 후양 웨이가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